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6년 10월 4일(일) 제1607호

온누리사역축제 '하이브리드 교회'

10월 13~15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및 부속실
리더십 최소 하루 이상 참석, 강의 7개 이상 청강 2학점 인정
모든 일정 등록자에게 이재훈 위임목사 <축매적 리더십> 증정

2026 온누리사역축제(OMC, Onnuri Ministry Celebration)가 오는 10월 13일(화) 개막한다. '하이브리드 교회'를 주제로 15일(목)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부속실에서 열린다. 3일 동안 하루 3개 세션씩 총 9세션이 진행된다.

2026 온누리사역축제에서는 오전에는 주제 강의, 오후에는 선택 강의와 오픈 집회가 이어진다. 주제 강의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서빙고 본당에서 열린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복음의 양면을 함께 볼드는 '하이브리드 교회'의 의미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선택 강의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빙고 부속실에서 온누리교회 14개 사역본부별로 진행된다. 선택 강의 신청은 사역축제에 등록한 성도에게 개별 안내한다.

오픈 집회는 매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에서 한다. 13일 김우준

목사(지구촌교회), 14일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15일 이재훈 위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이웃과 새가족도 집회에 초청할 수 있다. 집회 시간에는 선교관 2층 꿈아이홀에서 탁아방을 운영한다.

2026 온누리사역축제는 온누리교회 리더십과 성도, 국내 체류 선교사, 협력 기관 리더십, 타 교회 성도가 대상이다. 온누리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순장, 각 사역팀 리더십은 최소 하루 이상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임직 후보자는 9세션 중에서 3회 이상, 전임교역자는 3일 동안 모든 일정에 참석해야 한다. 행사 기간 모든 스쿨과 강의, 기도모임, 순예배는 사역축제 참석으로 대체된다. 모든 일정 등록자에게는 이재훈 위임목사의 신간 <축매적 리더십>을 증정한다.

참가 신청은 소속 공동체나 사역팀을 통해서 하면 된다. 순에서 신청



2025 온누리사역축제(OMC).

자를 모아 공동체가 일괄 접수한다.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는 'ONCARE'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10월 11일(일) 이후에는 현장 등록만 가능하다. 주제 강의와 선택 강의를 포함해서 강의 7개 이상을 청강하고, 소감문을 제출하면 임직 2학점(선택)이 인정된다. 학점 관련 자

세한 사항은 로비에 설치되는 '학점 관리데스크'에서 확인하면 된다.

행사 기간 교회에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주차장과 공원 임시주차장은 3인 이상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외부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다. 한강시민공원 이촌 제2, 3주차장

을 이용하면 주차비를 지원한다. 이촌역 4번 출구, 서빙고역 1번 출구, 한강시민공원 이촌 제2, 3주차장에서 서빙고온누리교회를 오가는 셔틀도 운행한다<관련 기사 11면>.

문의: 02-3215-3234(행사 문의), 02-3215-3220(주차, 셔틀 문의)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 'AI 시대의 제자도'

10월 27~31일 서빙고 본당, 온라인, 양재 기쁨홀

온누리교회 미래성장위원회가 제4회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를 온라인(유튜브)과 오프라인(서빙고, 양재)으로 개최한다. 'AI 시대의 제자도' (마 16:24)를 주제로 10월 27일(화)부터 31일(토)까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의 미래에 대해 청장년이 함께 고민하고 교제하는 장(場)이 열린다.

10월 27일(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는 '세상 가운데 제자로의 삶'을 주제로 이인용 장로가 강의한다.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온라인 특강을 한다. 10월 28일(수) '제자도의 이해와 실천'을 주제로 박태성, 김영욱 장로, 29일(목) '로잔운동에서의 제자도'를 주제로 김홍주 목사, 30일(금) 'AI에 대한 성경적 관점 및 활용 가이드'를 주제로 김경훈 집사가 강의한다.

매일 오후 7시 30분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로 중계한다.

본 행사는 10월 31일(토)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AI 시대의 제자도'를 주제로 열린다. 주제 강의, 설문 결과 발표, 대학청년부 공모전 우수작 발표, 패널 토의 등을 한다. 주제 강의는 이재훈 위임목사, 설문 결과 발표는 박태성 장로가 한다. 패널 토의는 이인용 장로가 사회를 보고, 이재훈 위임목사, 이서진 목사, 유혁 집사, 하선희 집사 등이 패널로 참가한다.

온누리교회 미래성장분과위원회에서는 제4회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행사에 앞서 'AI 시대의 제자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하단 QR코드 참고). 10월 5일(월)까지 참여하면 된다. 설문조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제자도에

대한 인식 및 실천, 말씀 묵상(QT), 전도, 일대일제자양육의 현황, AI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다.

문의: 02-3215-32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10월 비전헌금

'거제 홍수 피해 및 농어촌 교회' 후원

10월 10~11일 봉헌하는 비전헌금은 '거제 홍수 피해지역 및 농어촌 교회'를 후원하는 데 사용한다.

지난 8월 15~18일 거제시 일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심각한 침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거제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교회를 비롯한 종교 시설은 사유 시설로 분류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원 대상은 새중앙교회와 옥산교회, 농어촌 미자립 교회이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10월 10~11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교회주차장은 다자녀, 장애인 등 지정 차량만 이용

10월 10일(토)과 11일(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다.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10월 10일(토) 오전 7시부터 11일(일) 오후 6시까지 교회주차장 이용을 제한한다(캠퍼스는 상황에 맞게 진행).

이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교회 주변 아파트나 상가,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교회주차장은 장애인, 임산부, 3개월 이하 동반 자녀가 있

는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차량은 주차장 입구에서 자녀 3명 탑승을 확인하고 입차할 수 있다.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이촌역, 국립중앙박물관, 거북선 나루터,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양재역 환승주차장을 오가는 셔틀은 일요일(10월 11일)에만 운영한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10월까지 CGN 정기후원의 달

10월까지 '선교지와 복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세요'를 주제로 CGN 정기후원 캠페인이 이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전화(02-796-2243) 또는 CGN 웹사이트(cgnkorea.net),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CGN이 정기후원의 달을 맞아 특집 다큐멘터리 '땅끝의 증인들: 출동! 섬마을 변방장'을 공개했

다. 기독 OTT '풍당'과 CGN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드림온브릿지(DreamOn Bridge)' 캠페인도 한다.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선교지에 제게도 위성 인터넷(스타링크)을 연결해 주는 사역이다<관련 기사 5면>. 개인과 공동체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796-2243



온누리교회 미래성장분과위원회
'AI 시대의 제자도'에 대한

설문조사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바로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는 ‘과연 이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사 에훗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나안 정복에서 기여도가 가장 떨어졌습니다. 또 에훗에 대한 설명을 보면 ‘오른손을 쓰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장애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리더로 합당할 수 없다’는 평가가 들어 있는 표현입니다. 누구나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한 일을 보면 당혹스럽습니다. 그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갔다가 거짓말로 속이고, 그를 찔러 죽이는 암살을 했습니다. 당혹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나라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

하나님은 뜻밖의 나라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해 이스라엘을 맞서게 하셨습니다”(12절).

‘또다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웃니엘’이 가져다준 40년의 평온이 끝나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같은 길을 갔습니다. 죄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같은 것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악한 자의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거짓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줄거리는 이름과 사정만 바뀔 뿐 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과 인간이 죄를 짓는 방법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매번 뜻밖입니다. 매번 다릅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징계하시는 방법도 뜻밖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먼 친척이기도 했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올라올 때 모압은 별별 떨던 나라였습니다.

대개 하나님이 <사사기>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 또 ‘파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글론에 대해서만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사사기 강해(4)
뜻밖의 선택

사사기 3:12~17, 27~30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모압이 암몬과 아말렉을 끌어모아서 요단을 건너와 종려나무 성읍을 정복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얻은 첫 승리의 땅이고, 여호수아가 저주했던 바로 그 땅을 모압이 차지한 것입니다. 첫 열매의 성읍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민족이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살이가 18년입니다. ‘구산 리사다임’ 밑에서는 8년이었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징계가 점점 길어 집니다. 그 18년 동안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를 15절의 한 단어가 설명합니다. ‘조공’ 혹은 ‘공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하는데, <레위기>에서 곡물로 드리는 제사, 곧 소제를 드릴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이 모압 왕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백성들이 애써 수고하고 거둔 추수의 곡식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으로 바쳐졌습니다. 바알을 섬기던 백성들이 에글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불든 우상은 우리를 먹여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거짓으로 풍요를 약속하지만, 나중에는 공물을 요구합니다. 성공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을 섬기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재물과 삶을 우상에게 내어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리고를 내어주고, 소중한 것을 모두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구원자를 세워 주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원손잡이 에훗을 그들의 구원자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칠 선물을 그를 통해 보냈습니다”(15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회개의 의미는 아닙니다. 아파서 내는 신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구원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끈질기게 죄로 되돌아가지만, 하나님은 끈질기게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뜻밖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1장에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지파로 단 한 번 나올 뿐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지파입니다. 또 ‘베냐민’이라는 이름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 나온 원손잡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기면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오른손이 불편했다고 해석하

는 학자도 있고, 어려서부터 왼손을 단련했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흠입니다. 결함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구원자로 기대하던 모습과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근거는 에훗을 조공을 보내는 심부름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공물, 조공을 바치는 사람으로 왜 에훗을 선택했을까요? 모압이 경계하지 않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개 조공을 바치는 일은 굴욕적입니다. 굴욕적인 일을 할 때 그 나라의 군사령관을 보내겠습니까? 자존심 강하고, 애국심 강한 사람이 조공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일에는 전혀 위험이 되지 않는 사람이 알맞습니다. 상대방이 의심하지 않을 사람, 겉으로 볼 때 싸울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 시시해 보이는 사람,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조공을 들고 갑니다. 그래야 모압 왕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의심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다윗도 그렇게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밖의 선택을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사람들의 선택에서 밀려나는 이가 하나님의 선택에서도 밀려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선택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고전 1:27).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그 방법까지 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웃니엘 같은 사람을 계속 기대합니다.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눈길을 주지 않은 사람, 우리가 부끄러워하던 약함, 또 닫힌 것 같았던 길에서 뜻밖의 선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을
인정하시거나 칭찬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을 인정하시거나 칭찬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6절까지 에훗이 칼을 직접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찹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주로 왼편에 칼을 찹니다. 왕의 경호대가 몸을 수색했다면 왼쪽을 집중적으로 살폈을 것이고, 오른쪽에 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는 오른편 다리에 칼을 숨겨서 들어갔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일행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뜻밖의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돌아가다가 다시 길갈 근처에서 발길을 돌려 “왕에게 은밀히 아뢰 말야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왕은 그를 믿고 신하들을 내보냈습니다. “은밀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습니다”라는 말에 속아 신하들을 몰라가게 한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의자에서 일어났는데, 에훗이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같이였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몸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조공을 받아서 살쥔 왕의 몸이 공물이 되고,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옷니엘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에훗에게 임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부정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가 적을 몰라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사고방식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역사에서 에훗의 이름을 앞세워 칼을 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 주석가들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에훗은 왕이 없던 시대에 주어진 부르심이었고, 그의 방법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함으로써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넓게 보면 처음부터 없어도 되는 같이였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충성되었다면 에글론이 여러고를 정복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에훗이 암살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폭력과 잔인함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반복되는 죄악입니다.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을 삶의 모델이나 원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굵어 있는 막대기로도 곧은 줄을 그을 수 있는 분입니다. 줄이 곧게 그어졌다고 해서 그 막대기가 반듯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나타나셔서 굵은 막대기로도 역사하심을 이루

십니다. 그러나 굵어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는 않습니다.

또 에글론 같은 이는 하루 만에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당시 사람들이 지도자를 고른다면 에글론 같은 사람을 고를 것입니다. 부유하고 강하고, 여러 나라를 자기 밑에 모을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시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글론이란 이름은 ‘송아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받아먹고 살쥔 송아지가 되어 스스로 제물처럼 쓰러진 것입니다.

<시편> 2편 4절에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에 무심하셔서 웃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할 것같이 생각했던 이 세상의 악의 권세가 얼마나 헛되게 무너지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뜻밖의 선택이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앞장세우고 그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에훗이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인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터를 차지하고 아무도 건너지 못하게 했습니다”(27~28절).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와와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가 왕을 죽였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모압의 왕은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에훗은 이제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80년 동안 평온하게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4장에서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끊임없는 악행의 반복, 에글론이라는 악

한 왕은 무너뜨렸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의 우상은 사사들이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 끊임없이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우상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에훗에서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야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에훗보다 뜻밖의 선택으로 오신 분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무슨 구원자가 날 것인가 사람들이 의아했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며 고향 사람들마저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형제 야고보도 “미쳤다”라고 말했던 뜻밖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칼을 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를 몰아내 로마 황제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 나라를 해방해 줄 구원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내셨고, 헤롯의 핍박으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는 연약한 모습의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원수를 칼로 찔러 죽이는 에훗과 달리, 예수님은 칼을 든 베드로에게 “도로 꽃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훗은 원수의 몸을 찔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그 칼을 맞으셨습니다. <사사기>의 구원자는 원수를 찔러서 백성을 건졌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에 의해서 찔림을 받음으로 원수까지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뜻밖의 선택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려한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자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큰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패

배로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에글론이 하루 만에 구경거리가 되었듯이,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밖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서 부르짖고 신음하지만 진정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힘들어서 부르짖는 것이지, 진정 회개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은혜로, 뜻밖의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뜻밖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천국 문에 이르러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질 때, 천사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원수를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따르라”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뜻밖의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고전 1:29).

사람들이 보기에 구원자가 될 만한 사람을 세웠다면 그 사람이 영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사람을 통해 구원이 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뜻밖의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강간으로 인한 임신, 낙태는 해답이 아니다

낙태를 둘러싼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장 하나가 “강간 피해 여성이 가해자의 아이를 강제로 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매우 감정적으로 호소력 있게 들리지만, 낙태 합법화의 근거로 삼기에는 여러 윤리적 문제가 따른다.

무엇보다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강간은 끔찍한 범죄이며, 강간은 명백한 악이다.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피해자는 극진한 연민과 돌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낙태 논의에서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는 대부분 전체 낙태를 정당화하기 위한 예외로 제시된다.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세 가지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강간이나 근친상간은 전체 낙태 건수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설령 이런 드문 상황에서 낙태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낙태는 이러한 예외로 설명될 수 없다.

둘째, 강간으로 인한 낙태는 무고한 생명을

처벌하는 행위다. 강간으로 임신이 이루어진 경우, 세 사람이 존재한다. 가해자, 피해 여성, 그리고 태아다. 이 중에서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오직 가해자뿐이다. 여성은 아무

리는 셈이 된다. 우리는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의 죄를 이유로 아이를 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태어나기 전의 아이에게는 그 형벌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강간과 근친상간은 낙태의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하며, 이 예외는 전체 낙태를 정당화할 수 없다. 강간으로 인한 낙태는 무고한 생명을 처벌하는 행위이며, 인간의 가치는 잉태의 과정이 아니라 인간됨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 낙태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고, 단지 또 하나의 피해자를 만들어낼 뿐이다.”

잘못이 없으며, 아이 역시 아무 죄가 없다. 그러나 낙태는 유죄인 가해자가 아닌 무고한 아이에게, 심지어 가해자도 받지 않는 형벌을 내

셋째,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잉태되었는가에 달리지 않았다. 어떤 생명은 사랑 가운데, 어떤 생명은 욕망 가운데, 또 어떤 생명은 폭

력 속에서 잉태된다. 그 모든 경우에 한 인간이 존재하게 되며, 그는 무고하고, 대체 불가능하며, 존엄한 존재다. 인간은 그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과 권리를 지닌다.

낙태는 이미 일어난 일을 바꾸지 못한다. 낙태가 고통을 줄이는 방법처럼 보일 수 있으나, 과거를 없앨 수도, 피해자가 겪은 상처를 지울 수도 없다. 오히려 낙태는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든다. 강간은 잘못이다. 그러나 낙태 역시 잘못이다. 강간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낙태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결국 강간과 근친상간은 낙태의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하며, 이 예외는 전체 낙태를 정당화할 수 없다. 강간으로 인한 낙태는 무고한 생명을 처벌하는 행위이며, 인간의 가치는 잉태의 과정이 아니라 인간됨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 낙태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고, 단지 또 하나의 피해자를 만들어낼 뿐이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일반은총

은총의 세계관과 선교적 만남



홍준표 성도
(서빙교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2015년 6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한 교회에서 끔찍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 백인우월주의에 빠진 한 청년이 성경 공부를 하던 흑인 성도들에게 총을 쏘아 아홉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희생자 가운데에는 목회자이자 주 상원의원이었던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도 있었다. 며칠 뒤 열린 핑크니 목사의 장례 예배에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참석했다. 추도사를 이어가던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Amazing Grace~”

잠시 뒤 참석자들도 하나둘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인종에 대한 증오가 아홉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자리에서 ‘Amazing Grace’가 울려 퍼졌다. 그 장면의 절정은 인종차별에 맞서는 강한 목소리가 아니라, 나지막이 흘러나온 ‘은혜’라는 한 단어였다. 물론 그 자리에는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와 희생자들을 향한 깊은 슬픔이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내게 그 노래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나 정죄의 외침이라기보다, 죄 많은 인간을 여전히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올리게 했다. 인간은 서로 미워하고 상처 입히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세상을 곧바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은총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선하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얼룩진 세상임에도 여전히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며, 인간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취 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마 5:45).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성도와 비성도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과 창조 세계를 붙드시며 베푸시는 은혜를 ‘일반은총’이라고 부른다. 일반은총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반은총은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과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은혜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 무제한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억제하시고, 인간에게 양심과 재능, 창조성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간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창조하며,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의 질서를 세운다. 그러나 일반은총만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붙들여 주시는 은혜를 넘어,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것이 ‘특별은총’이다. 특별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은혜다.

이 두 은총을 이해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진다.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양심, 창조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문화와 예술, 과학과 기술, 기업과 직장에서 일반은총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세상을 비판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문화와 제도에는 죄로 인한 왜곡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도, 세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다.

마이클 고힌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에서 이러한 태도를 ‘선교적 만남(missionary encounter)’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대할 때 경계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하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여 기독교 공동체의 구별됨을 잃어버리는 ‘동화(assimilation)’이고, 다른 하나는 동화를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을 둘러싼 문화로부터 도피하려는 ‘철수(withdrawal)’이다.

선교적 만남은 이 두 극단을 넘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과 문화,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인정하되, 죄로 인해 왜곡된 부분은 복음의 빛으로 분별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이 보여 주는 구별된 삶을 드러내는 것이다.

선교적 만남은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은총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무조건 악한 것으로 배척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흔적을 발견하며 사람들과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은총이 인간의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특별은총을 통해 주어진

복음은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분별하게 하고, 죄로 왜곡된 것에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동시에, 복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다시 찰스턴의 장례식에서 울려 퍼졌던 ‘Amazing Grace’를 떠올려 본다. 그 노래는 내게 죄 많은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처럼 들렸다.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세상의 죄와 잘못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사람 자체를 미워하거나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한 가운데로 들어가 함께 살아가며, 각자에게 맡겨진 일과 관계 속에서 정직과 성실,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 줘야 한다.

선교적 만남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 일을 수행하는 방식,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된다. 세상을 정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곳으로 바라보며, 그 한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세상을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일상적인 ‘선교적 만남’일 것이다.

CGN 정기후원의 달

다시 연결된 기쁨 그리고 회복

‘드림온브릿지(DreamOn Bridge)’ 캠페인의 힘

선교지에서 단절은 고립이자, 선교의 실패를 의미한다. 그래서 선교지와 교회, 하나님과 선교사, 선교사와 성도를 ‘연결’ 하는 일보다 크고 무거운 일이 없다. 그것이 선교를 이어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 중요한 역할을 CGN이 한다. 위성방송부터 인터넷까지 최신 매체를 활용해 끊임없이 연결을 시도하는 그들을 우리는 ‘미디어 선교사’라고 부른다. CGN을 후원해야 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CGN 후원이 곧 미디어 선교의 확장이고, 미디어 선교사로서 동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CGN 덕분에 다시 세상과 연결된 선교사들이 있다. 오지에서 사역하는 정은희, 양승훈, 최인호 선교사가 그 주인공이다. 그들이 CGN ‘드림온브릿지(DreamOn Bridge)’ 캠페인 덕분에 다시 연결된 기쁨 그리고 회복을 고백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올해 개국 21주년을 맞은 CGN이 저궤도 위성 인터넷(스타링크)을 지원하는 ‘드림온브릿지(DreamOn Bridge)’ 캠페인을 시작했다.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선교사들을 세상과 연결하기 위해서다. 전기도, 수도도 충분하지 않은 오지에서 사역하는 남수단 정은희, 차드 양승훈, 케냐 최인호 선교사가 다시 연결된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선교사는 끊임없이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섬기는 일에 시간과 마음, 인생을 모두 건다. 문제는 강물이 마르지 않으려면 근원이 먼저 채워져야 하는 것처럼,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영적 양식이 메마르면 안 된다. 그런데 자원도, 사람도 넉넉하지 않은 선교지에서는 영적 배고픔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사역하는 정은희 선교사도 그랬다. 그런데 어느 날 ‘드림온브릿지’라는 마르지 않는 영의 양식이 도착했다. 그리고 끊어졌던 세상과 다시 연결됐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정은희 선교사는 1999년 수단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사명을 시작했다. 반복되는 내전의 소용돌이와 현지에서 추방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2014년에는 다시 남수단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12년을 보냈다. 지금도 남수단의 외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사실 그녀에게 ‘단절’은 일상이었다. 다



왼쪽부터 정은희 선교사, 양승훈 선교사, 최인호 선교사.

른 선교사들과의 교제, 자료 하나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빈 마음을 채워줄 신앙 콘텐츠는 더더욱 부족했다. 꼭 필요했지만, 하나씩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정은희 선교사에게 ‘드림온브릿지’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희망의 다리였다. 무궁무진한 가능성도 발견했다.

“‘드림온브릿지’가 단절된 곳에 희망의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주 가끔은 ‘홀로 이곳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CGN과 연결됐고, 다양하고 건강한 신앙 콘텐츠를 접하면서 큰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동역자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혼자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이자 은혜인지 모릅니다.”

‘선교사를 채우는 연결’이 ‘복음을 전하는 연결’로

정은희 선교사가 ‘드림온브릿지’에 거는 기대가 또 있다. 현지 아이들에게 기독교 OTT ‘풍당’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콘텐츠를 보여주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복음 메시지가 담긴 영화를 보는 것이다. 그 소망을 오랜 시간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았다. 콘텐츠와 자료가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필요한 영상을 구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제는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CGN 드림온브릿지 덕분에 주일학교에서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를 공유하고, 마을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 기독교 영화를 함께 볼 수 있게 됐다.

정은희 선교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전기도, TV도 없는 마을에서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예수님 이야기에 눈빛을 반짝이고,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녁을 꿈꾼다. 그 아름다운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고, 모두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소망한다. 그 체험



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면 주인의식이 생깁니다. 그 주인의식으로 마을과 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회복되고, 치유되면서 모든 게 좋아질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CGN이 선교사에게 채워준 물줄기가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가서 닿는다. ‘선교사를 채우는 연결’이 현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연결’로 이어진다.

세상과 한국 교회를 잇는 가장 든든한 밭

1997년 파송 받은 양승훈 선교사는 30년 가까이 아프리카 차드에서 교육과 의료, 사회 및 지역 개발 사역을 하고 있다. 통신 환경이 훨씬 열악하던 시절부터 그가 뼈저리게 느낀 어려움은 ‘고립’이었다. 소식 하나가 그에게 건네지기까지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돌아오는 데 몇 달이나 걸렸기 때문이다. 그에게 다가온 CGN의 드림온브릿지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이유다.

CGN과 연결되고 길 위의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는 사역을 위해 차드 중북부 지역을 자주 오간다. 끝없는 사막을 건너고 또 건너야 한다. 전화도, 인터넷도 닿지 않는 그곳에서 차량에 문제라도 생기면 도움을 청할 길이 없어 아찔한 순간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위성 인터넷으로 세상과 이어져서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양승훈 선교사가 말하는 ‘연결’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드림온브릿지’가 잇는 것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미 그는 연결의 힘을 체감했다. 지난해 CGN 방송을 통해 차드의 사역이 소개되자, 낯설던 땅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인터넷이라는 다리가 놓인 지금은 기도의 길이 더 넓어지고 단단해



질 게 분명하다.

“지난해 CGN ‘땅끝의 증인들, 바톤터치: 끝나지 않는 선교의 여정’에서 제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차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차드’라는 나라를 처음 들어본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방송 이후 많은 성도가 차드를 알게 되고, 기도제목도 나누게 됐습니다.”

고립의 땅에 놓인 희망의 다리 위로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오가기 시작했다. 양승훈 선교사에게 드림온브릿지는 사막 너머의 세상과 한국 교회를 잇는 가장 든든한 밭이다.

‘선교의 삼겹쥬’이 만드는 또 한 번의 기적

최인호 선교사가 사역하는 아프리카 케냐 코어 지역은 낙타와 염소, 양을 키우며 살아가는 렌달레 부족의 땅이다. 전기와 수도 시설조차 없는 이곳에서 그는 어린이 제자양육과 과부 후원, 교회 개척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최인호 선교사는 10여 년 전 CGN이 지원한 위성 안테나로 방송을 시청하기 시작했다. CGN 안테나는 그에게 오지에서 복음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다. 이제는 ‘드림온브릿지’라는 또 하나의 통로가 생겼다. 훨씬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독교 OTT ‘풍당’의 어린이 콘텐츠는 어린이 제자양육 사역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저처럼 오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네트워크 지원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큰 위로이자 힘입니다. 선교사들이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선교사의 사역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다. ‘연결’이다. CGN과 선교사 그리고 나(후원자)로 묶인 ‘선교의 삼겹쥬’이 또 한 번 기적을 만들 때다. 9월과 10월은 CGN 정기후원의 달이다.

문의: 02-796-2243



드림온브릿지 QR

‘성경’과 ‘성령’으로!

NLS 난민교회가 보여준 ‘성공적 자립’



전영수 장로
(이천선교본부
중동융합선교팀장)

온누리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시리아 개종자 교회 NLS 난민교회(이하 NLS교회)는 최근 수년 사이 5개 융합선교 사역 분야에서 자립을 이루었다. 융합선교란 QT, 일대일제자양육 같은 온누리교회의 사역 자산을 현장에 융

합해 선교하는 전략을 말한다. 온누리교회는 2018년부터 NLS교회에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일대일제자양육, QT, 디지털전도를 보급했고, 이들은 이 모두를 스스로 운영할 능력을 갖추었다. 이제 온누리교회의 융합선교 사역은 NLS교회의 자립을 통해 아랍어권으로 재생산 보급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개종자 난민들로 구성된 NLS교회가 5개 분야에서 자립한 데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

첫째, 전 세계 선교지 교회를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다. 많은 선교지 교회가 융합선교 사역 도입을 시도했지만, 5개 분야에서 자립한 교회는 NLS교회가 유일하다.

둘째, 성도들이 전면에 나서 ‘성도사역’을 실현했다. 온누리교회 융합선교의 특징은 성도가 참여하는 성도사역이다. 선교지 교회에서 목회자가 아닌 성도가 전면에 나서는 일은 매우 드물다. 더구나 여성들이 나선 것은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셋째, 개종자들이 전면에 나섰다. 상당수 개종자는 신앙에 뿌리내리기도 바빠서 양육자나 재생산 사역자로 서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NLS교회의 개종자들은 가르치고 사역을 확산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성경’이 자립에 미친 영향

무엇이 NLS교회를 이토록 훌륭하게 자립시켰을까? 온누리교회 선교본부와 두란노아버지학교, 두란노어머니학교 등 사역본부의 열정, 선교본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큰 요인이다. 그러나 가장 핵심 요인 하나를 꼽으려면 나는 ‘성경’이라고 답하겠다. NLS교회는 온누리교회를 통해 QT를 알게 된 이후 시리아 아랍어로 번역한 ‘듣는 QT’ 콘텐츠를 매일 운영한다. 성도들은 편안하게 성경과 해설을 들으며 묵상한다. 이렇게 묵상하는 동안 <디모데후서> 3장 16~17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신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이 글에서는 자립 사례별로 성경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QT 자립’에 미친 영향이다. 온누리교회 QT는 2019년 우리 부부가 QT와 일대일제

자양육 세미나를 하면서 NLS교회에 처음 소개되었다. 개념과 기초만 가볍게 다룬 예비 세미나였는데, 이 세미나가 NLS교회 AR 목사에게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할 눈을 열어주었다. AR은 목사가 되기 전 미국인 P선교사 부부에게 BEE(Biblical Education by Extension, 성경연장교육) 훈련을 받으며 성경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목회자가 된 뒤에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읽게 할지를 고민했는데, 온누리교회의 QT가 그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성도들이 쓰는 아랍어 성경 <반다이크(Van Dyke)>는 고어 표현이 많아 읽어도 뜻을 알기 어려웠는데, 온누리교회 QT 해설이 본문 이해를 도우리라 기대한 것이다.

또 그는 읽기보다 듣기를 선호하는 문화적 특성을 설명하며 듣는 QT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랍어로 번역된 <생명의 삶> QT 콘텐츠를 공급하고, 그들이 해설을 시리아 아랍어로 재번역해 자신들의 육성으로 녹음하기로 했다. 신앙 수준이 아직 연약하니 복음서부터 시작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맞게 개별화한 QT를 만들고자 했다. 양측이 열심히 협력한 끝에 2020년 ‘시리아 아랍어 듣는 QT’가 탄생했다. 최초의 QT사역 자립이었다. 그들은 이 QT를 교회 유튜브 채널에 매일 올려 모든 성도와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다. 처음에는 매일 QT 하는 성도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성도 대부분 듣는 QT를 하고 있고, 이것이 성경적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둘째, ‘아버지학교 자립’에 미친 영향이다. 2017년 온누리교회 중동융합선교팀과 NLS교회가 처음 만나 MOU를 맺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은 ‘가정사역’이었다. 당시 AR 목사는 난민 가정에서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가정폭력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아버지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가정사역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듬해인 2018년 제1기 이스탄불 난민아버지학교가 열렸다. 이 학교는 개종자 아버지들을 크게 변화시켰고, 이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내들이었다. 아내들의 요청으로 3기까지 열렸고, 이때까지는 한국 사회자와 강사가 현지에서 섬겼다. 이후에도 아내들은 열화 같은 요청을 이어갔다.

우리는 이 분위기가 자립의 촉진제가 되리라 판단해 4기부터는 NLS교회가 진행과 강의를 모두 스스로 하도록 권했다. 이들은 역할을 나누어 사회는 AR 목사가, 4개의 강의는 AR 목사와 SH, AH 사역자 등이 맡기로 하고, 과거 난민아버지학교 영상을 활용해 꾸준히 준비했다. 금년 5월 제4기 아버지학교가 개시되었다. 진행자와 강사들은 아랍어와 시리아 정서를 녹인 진행과 강의로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선사하며 자립에 훌륭히 성공했다. 이 리더들은 평소 설교와 성경 교육, 전도 등 다양한 사역을 해온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고 했다. 감사하게도 불신자 두 가정이 참석했는데, 학교를 마친 이후 한 가정의 네 식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가정사역을 전도로 잇겠다는 AR 목사의 목표가 실현된 것이다.

셋째, ‘어머니학교 자립’에 미친 영향이다. 성경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된 곳은 어머니학교다. 금년 7월 초 튀르키예 이즈미르에서 열린 제5기 난민어머니학교에서는 부분 자립이 계획되어 있었다. 사회와 강의 2개는 난민 여성들이, 코칭과 강의 2개는 한국 두란노 어머니학교 리더십이 맡기로 했다. 한국 리더들은 2개월 동안 온라인 통역 과정으로 사회자와 강사를 양성했고, KH 사모가 사회자로, JH 자매와 RJ 자매가 강사로 세워졌다. 그런데 학교 1주 전 KH 사모가 부친상을 당해 부득이 사회자를 교체해야 했다. 사회자가 없으면 학교를 취소해야 할 위기였다. 이때 JH 자매에게 사회가 권유되었는데,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자신이 5일 만에 준비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거절하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호수아> 1장 4-5절 말씀이 떠오르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하기로 수락했다고 한다.

7월 8일 어머니학교가 열렸다. JH 자매는 첫날 침착하게 전체 과정을 이끌고 맡은 강의도 훌륭히 해내 함께 간 한국 리더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그날 밤 조장인 AG 자매가 심한 구토로 한밤중에 병원을 두 번이나 가야 했고, 스태프들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둘째 날을 섬겼다. 아침에도 회복되지 않은 AG 자매에게 숙소에서 쉬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조원들을 섬기겠다고 현장을 지켰다. 참가자 대부분이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이혼당하거나 극심한 가정 불행을 겪는 여성들이어서 영적 방해도 무척 심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영적 전쟁임을 선포하고 스태프 모두 강력한 대적기도로 맞섰다.

JH 자매의 진행은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허점과 미숙함이 군데군데 보였지만, 재치와 적절한 멘트로 참석자들을 감동하게 해 이날 어머니학교를 은혜롭게 마쳤다. 이날 강의한 RJ 자매는 18개월 아기를 포함한 세 아이를 현장에 데려온 어머니로서 집중하기 쉽지 않았지만, 강단에 서서는 침착하게 강의했다. 무엇보다 성경을 풍부히 인용해 불행한 어머니들을 말씀으로 위로했다. 물품 구매와 후방 지원을 맡은 SV 자매는 아랍어 문맹자였지만, 한 치의 오차 없이 지원 사역을 소화했다. 그녀가 매일 듣는 묵상으로 기도의 용사로 세워졌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이렇듯 난민 여성들은 평소 성경 듣기와 묵상을 생활화해 영적 능력을 축적했기에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의연하게 자립할 수 있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예수 영접 소식이다. 불신자 여성 3명이 참석했는데, 아랍계 여성 1명은 자신의 이혼 판결 재판과 겹쳐 둘째 날 불참했지만, 마지막 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감격의 성찬에 참여했다. 우리는 이번 어머니학교를 ‘성령님의 역전 드라마’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넷째, ‘디지털전도 자립’에 미친 영향이다. 금년 초 NLS교회는 SNS 디지털 광고로 시리아 전도를 시도해 7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지금까지 200여 명이 넘는 시리아인에게 디지털 성경을 꾸준히 보급하고 있다. 이 사역은 AB 형제가 맡고 있는데, 그 역시 매일 QT와 제자훈련 프로그램 ‘Peter’s Boat’ 덕분에 성경 기반이 탄탄하다. 그는 매일 광고를 기획하며 시리아인들에게 어떤 성경의 메시지를 전할지 깊이 고민한다. 그렇게 만든 복음광고를 영적 불모지인 시리아 땅에 꾸준히 보내 매달 평균 2,200여 명의 반응자를 응대하고, 그중에서 평균 24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한다. 금전 요구나 비방 등 불순한 의도로 반응한 사람들도 마다하지 않고 침착하게 성경 말씀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일부에게 성경을 보내는 데 성공한 일도 자주 있다. 성경은 AB 형제가 훌륭한 사역자로 자립하도록 큰 힘을 공급하고 있다.

자립을 이끈 ‘성령님’

NLS교회의 사역 자립을 이끈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들이 성경을 듣고 묵상하는 동안 성령님이 말씀의 감동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 그 과정이 5개 융합선교 사역 자립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일이지만 자립 자체로 끝난다면 대단히 아쉽다. 그들의 자립을 통해 온누리교회 융합선교 사역을 다른 곳으로 확산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다. 자립했다고 곧장 재생산이나 사역 확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시리아 액센트로 녹음한 듣는 QT를 다른 아랍어권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을 수 있고, 시리아 난민이 진행하는 아버지학교에 다른 아랍어권 아버지들이 참석할 가능성도 미지수이다. 문화적 장벽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인 확장 방향은 우선 시리아, 우선 난민이다. 여러 나라에 흩어진 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회가 많으리라 예상한다.

원격지 영혼을 대상으로 하려면 디지털 접근이 필수적이다. 감사하게도 한국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에 온라인 두란노아버지학교와 두란노어머니학교를 진행했는데, 효과가 대면 학교에 뒤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경험을 그들에게 전수하고, 머리를 맞대고 확장을 고민한다면, 성령님이 융합선교 사역을 열방으로 넓게 펼쳐 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역에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카카오톡 ‘디지털선교팀’(QR 코드) 단체 채팅방에 들어오면 된다.

문의: 010-3797-3684



중보기도방 QR

‘힐링멘토’ 김조한과 함께

“판단이 아닙니다, 동행입니다”

K-CCM ‘힐링보이스’만이 가진 특별함

CGN이 기독교 OTT ‘풍당’ 론칭 5주년을 맞아 준비한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가 9월 20일(일) 첫선을 보였다. 시작부터 그 열기가 대단했다. 단숨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K-CCM ‘힐링보이스’만의 특별함이었다. 경연 프로그램인 만큼 ‘보이스(참가자)’간 긴장감이 흐르면서도, 판단보다 보이스들과 동행하며 성장과 위로에 무게를 둔 따뜻함이 모두의 마음을 녹였다. 힐링멘토 김조한이 K-CCM ‘힐링보이스’만의 특별함을 이야기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링멘토’라는 이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을 판단하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녹아있습니다. 그 특별함이 제 마음을 움직였고, 그 자세로 참여했더니 어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힐링멘토 김조한은 보컬 트레이너로도 오랜 시간 활동했다. 그 덕에 짧은 시간만 살펴도 보이스들의 성장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보이스에게 기술적 요소를 전수하면 실력은 늘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창력이나 고음 같은 기술적 요소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게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가창력과 고음 같은 테크닉은 다듬어주면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제가 K-CCM ‘힐링보이스’ 심사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보이스들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균형과 노래를 대하는 자세,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몇 주 동안 이야기 나누고, 기술적 요소를 전수하면 어느 순간 보이스들의 실력이 늙는다. 자신감이 없던 보이스들도 다른 참가들과 소통하고 선배들의 조언도 들으면 성장합니다. 보이스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관계안에서 나타나는 보이스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장 강조할 것입니다.”

그에게 K-CCM ‘힐링보이스’는 단순한 오

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이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들여다보고, 그들 곁에서 치유와 성장을 돕는 힐링멘토가 되기를 소망하는 소명의 자리다.

“보이스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이들도 있고, 좋은 선배들을 만나서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는 보이스들도 있습니다. 저는 힐링멘토로서 그들 곁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마음껏 손뼉을 쳐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아기가 걷는가 싶더니 어느새 뛰는 것처럼, 보이스들을 묵묵히 그러나 정성껏 섬길 것입니다.”

보이스들에게 현실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CCM 가수의 길은 노래 실력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자신이 겪은 시행착오를 후배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노래를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K-CCM ‘힐링보이스’에 나온 분들은 이미 1,600여 명의 경쟁을 뚫고 온 재능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독수리처럼 또 한 번 비상하도록 힐링멘토들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기독교 OTT ‘풍당’, 오후 5시 CGN TV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부모 전도, 이렇게 하세요

부모님의 언어로 말하라!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들도 부모님께는 낯선 외계어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같은 복음이라도 어떤 언어와 태도로 건네느냐에 따라 부모님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 어려움은 ‘언어와 태도를 바꾸는 전략’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첫째, ‘천국’이라는 미래보다 ‘평안’이라는 현재를 먼저 선물한다.

부모님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말은 자칫 “죽음을 준비하세요”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복음을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마음의 보약’이자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로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실전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천국 가셔야죠’라는 말을 “마음이 참 평안해져요”라고 바꿔서 말한다. 사후 세계보다 신앙으로 얻는 현재의 심리적 안정감과 스트레스 완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다음, “회

개해야 합니다”는 “마음을 비우고 새 힘을 얻어요”라고 바꿔서 말한다. ‘죄’와 ‘심판’이라는 무거운 단어 대신, 정서적인 평화와 회복의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부모님께 복음은 ‘정답’이 아니라, ‘위로’여야 한다.

둘째, ‘부모님 전도’는 부모님의 언어로 통역하는 과정이다.

신앙생활의 용어들이 부모님께는 외계어처럼 들릴 수 있다. ‘은혜받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참 따뜻해졌다’로, ‘축복한다’는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로 바꿔서 말한다.

실전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 용어를 자제한다. 사영리에 나오는 용어나 교리적 단어보다는 부모님이 평소 쓰시는 단어로 대화한다. 그다음, 비유를 활용한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라면 ‘씨 뿌림과 수확’으로, 장사를 하셨던 분이라면 ‘정직한 거래’의 관점에서 신앙을 설명한다.

셋째, 질문은 부모님에게 남겨 둔다.

전도는 부모님의 마음속에 ‘궁금함’이라는 씨앗이 심길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다. 부모님이 먼저 “요즘 왜 그렇게 표정이 좋니?”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통로가 된다.

실전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궁금증을 유발한다. 일상의 평안함, 고난 속에서 감사 등 부모님이 보기에 ‘무언가 다른’ 삶의 태도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다. 그다음, 짧게 답하고 기다린다. 부모님이 물어보셨을 때 너무 길게 설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정도로 짧게 답하고 더 물어보실 때까지 여백을 둔다.

넷째, 스마트폰으로 복음의 길을 안내한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부모님께 24시간 열려 있는 ‘영적 안식처’가 될 수 있다. 자녀가 정성껏 골라 준 영상 한 편, 찬양 한 곡은 부모님의 일상에 복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훌륭한 선교사가 된다.

실전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디지털 예배 환경’을 직접 구축해 드린다. 유튜브 앱 첫 화면에 교회 채널이나 부모님 성향에 맞는 설교 채널을 즐겨찾기 해 둔다. 그다음, 부모님 맞춤형 ‘큐레이션’을 한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트로트곡의 찬양이나 거부감이 적은 간증 콘텐츠부터 공유한다. 당신이 보내 드린 3분짜리 영상 한 편이 부모님의 24시간을 천국 소망으로 채우는 ‘영혼의 영양제’가 될 것이다.

*** 부모 전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모 전도 101(2026), 두란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민 목사
(전도사역본부장)

NGO 메디엑세스 드림팀
네팔

공동체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다. 이번 여름 네팔 해외 의료 선교가 있는데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전 같았으면 해외라는 게 부담스러워 그 자리에서 거절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는지 기도해 보고 알려드리겠다고 전화를 끊고 기도했다.

만 49세가 되면서 하나님이 희년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셨지만, 그 나이가 차도록 헌신한 것은 별로 없었다. 상황이 여의찮았으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무언가 보여주시려는 게 있을 것만 같았다. 결국 가겠다고 전화를 드렸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을 깨닫게 해 달라고 구했다.

얼마 뒤 네팔 아웃리치 준비모임이 시작되었다. 몇 년 동안 헌신해 오신 선생님들과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색함 없이 편하게 맞아주셨다. 몇 차례 만나면서 한 분 한 분과 그동안 오지에서 고생하신 이야기와 헌신의 사연을 들었다. 그러는 사이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짐을 느꼈다.

네팔 카트만두가 해발 1,400m 정도라고 해서 고산병이 걱정되었는데, 트리부반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같은 비행기에 다른 교회 두 팀도 타고 있었다. 숙소는 위생 문제를 고려해 3성급 호텔에 예약해 주셔서 매우 좋았다. 처음에는 여행을 온 듯한 편안함마저 느껴졌다.

이튿날 아침 일찍 현지 선교사님이 카트만



NGO 메디엑세스 드림팀이 네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방치료를 제공하며 의료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두 인근 보건소를 예약해 주셨다.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를 한 다음 보건소로 향했다. 보건소 공무원과 주민들이 천막을 치고 환영식을 열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는 몸 둘 바를 몰랐다. 선교하러 왔는데 대접을 받는 게 다소 어색했다. 그러나 네팔 민속 노래를 함께 부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를 찬양하며 축복하자 금세 친해진 느낌이었다.

진료 침대를 세팅하자마자 인근 주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진료했는지 모를

만큼 정신없이 지나갔다. 통역이 붙었지만, 현지인들과 손동작 발동작을 해 가며 대화를 나누며 마음이 통했다. 여기저기 아픈 환자가 많았는데, 몇몇은 마음이 아프다고 찾아왔다. 그때 문득 도로 곳곳에서 본 작은 사당들이 떠올랐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님과 한국 교회의 많은 아웃리치 팀을 보내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둘째 날 진료를 마친 저녁에는 한국 식당을 빌려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세운 전도자 18명

과 아웃리치팀이 서로를 블레싱하는 시간을 가졌다. 네팔 산악지역에 현지 전도자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산악지대를 오토바이로 오랜 시간 달려 카트만두까지 오신 전도자들의 간증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묻어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할 때만 해도 길 것만 같았던 일정이 사흘째 오전 진료를 마치자 어느새 끝나 있었다. 나는 혼자 보건소 3층 옥상에 올라가 카트만두 땅을 내려다보았다. 우기라고 했는데 하늘은 청명했고,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귀국하고 며칠 뒤, 네팔에 대홍수가 나 카트만두 북부 수십 킬로미터 지역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는 뉴스를 접했다. 피해자 가운데 한국 회사의 직원들이 있다는 사실도 들었다. 카카오톡으로 실종된 한국인 중에 선교사님이 아시는 신실한 크리스천 두 분이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 하나님께 네팔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을 직접 보게 하시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요한 성도
(분당A공동체)

광명공동체
스리랑카

2023년 2월, 우간다에서 선교사님 가정을 환영하고 돌아온 바로 그 주일이였다. 식당에서 우간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광명공동체의 역사를 정리해야 하는데 함께해 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이름은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지난 기록을 정리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역대 아웃리치와 체육대회, 예배와 섬김의 기록을 따라가며 지난 40년을 한꺼번에 들여다봤다. 역사를 정리한다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나는 그 시간을 통해 공동체를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이름만 올려놓고 있지 말고, 아웃리치에 참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 마음이 나를 첫 아웃리치 지역인 스리랑카까지 데려갔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우리는 이성희 선교사님이 섬기는 라뚜갈라교회에서 베다족 아홉 쌍의 결혼식을 준비했다. 한국에서 조화와 드레스, 신발, 양복까지 하나하나 준비해 가져갔다.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손으로 버전로드를 만들었다. 누군가는 꽃을 달고, 누군가는 옷을 입히고, 누군가는 신랑과 신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렇게 우리의 손을 거쳐 아홉 쌍의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앞에 섰다.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아홉 쌍 부부



광명공동체 스리랑카 아웃리치팀이 베다족 결혼식 준비를 돕고 있다.

의 새로운 시작을 온 마음으로 축복하는 팀원들을 바라보면서 결혼식이 이렇게 많은 사랑의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화려해서 아름다운 결혼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새로운 삶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어준 사람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 그곳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

나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가져간 캠코더 덕분에 멀리서 있는 신랑과 신부의 얼굴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울컥하는

표정, 애써 눈물을 참는 순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카메라 너머로 지켜보며 나 역시 여러 번 울컥했다. 그 순간 아웃리치 둘째 날 내게 왔던 말씀이 다시 떠올랐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 126:5).

올해 나는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하지만 될 듯하다 멈추는 일을 여러번 반복하고 있었다. 함께 일하는 동료와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 왜 안 자라지? 토양이 잘

못됐나 봐”라고 이야기하곤 했었다. 그런데 인터넷조차 제대로 되지 않던 스리랑카에서 성경 앱이 잠시 열리며 우연처럼 이 말씀이 내게 왔다.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자라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매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씨를 뿌리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준비한 결혼식도 그 씨앗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한국에서 가져간 꽃 한 송이와 드레스 한 벌, 누군가의 손으로 만든 버전로드와 축복의 말들이 우리에게 작은 수고일지 모르지만, 그날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약속한 아홉 가정에게는 오래도록 남을 씨앗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그 가정에서 또 다른 사랑이 자라고, 그 사랑이 다시 누군가에게 새로운 씨앗이 될지도 모른다. 사랑으로 뿌린 씨앗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하고 계셨다. 나에게 스리랑카 아웃리치는 다시 씨앗을 뿌릴 힘을 얻은 시간이었다.



최유진 성도
(광명공동체)

다시 씨앗을 뿌릴 힘

수원온누리교회 서누리공동체
인도네시아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를 외치며 눈물로 복음을 전했던 대학 시절의 열정이 2026년 인도네시아 소망의 땅에서 불길처럼 다시 지펴졌다. 뜨거운 피를 흘리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수원온누리교회 서누리공동체 32명의 용맹스러운 십자가 군병들에게 부여졌다.

서누리공동체는 결연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서 융합선교&선교네트워크, 선교동원, 공동체성경읽기 등의 사역을 하고 계신 이은준, 문은미 선교사님과 함께 4박 6일 동안 Sanja교회 성도들과 무슬림 지역 주민들을 섬겼다. 중점 사역은 청년 결혼 예비학교, 모든 성도 야외예배, 무슬림 지역 주민 바자회 만찬 섬김, 어린이 코너 활동이었다. 총 9개 사역팀을 구성해 130개 실천과제와 대응계획을 4개월 넘게 준비했다.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 결혼 예비학교 세미나에 31명이 참석했다. 초등학교생과 중학생 팀원들은 판소리와 해금 연주 등으로 한국 문화를 나눴다.

인도네시아에는 결혼할 때 아내의 부모님께 지참금을 드리는 문화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일할 사람으로 ‘아내를 돈 주고 사 온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다. 결혼이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청년들은 부모님께 꼭 알려 드리겠다고 했다. 서



수원서누리공동체 인도네시아 아웃리치팀이 Sanja교회 성도들과 함께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다.

로에게 책임을 다하며 다음세대를 위한 건강한 신앙 가정을 세우기로 결단했다.

120여 명이 참여한 모든 성도 야외예배에서는 다양한 단체 게임을 통해 교회의 연합과 하나 됨의 기쁨을 경험했다. 형편이 어려운 Sanja교회 성도님들과 무슬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계심을 낮춰 자연스럽게 교회를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생필품을 나눠줬다.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자회도 열었다. 판매 수익금은 교회 청년

들을 위한 악기 구입에 쓰도록 헌금했다. 주민들이 존중받고 환대받는 마음이 들도록 정성을 다해 섬겼다. 어린이들에게 포도존,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트 등의 선물을 줄 때는 그들의 마음에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것만 같았다.

Sanja교회 목사님 부부는 이 마을에서만 20년 넘게 사역하며 목숨의 위협 등 고난을 묵묵히 감당해 오셨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생전 처음 교회 문턱을 넘은 무슬림 주민이 많았다. 그들이 목사님 부부께 감사하다며 몇 번이

나 인사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접촉점이 되는 기적을 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아침 6시 30분에 모여 늦은 밤까지 쉼 없이 흐르는 땀과 사투하느라 기진맥진해도, 팀원들의 천사 같은 얼굴을 보면 행복감이 벅차 오르곤 했다. 많은 돈이 생긴다면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는 Sanja교회 청년들의 고백과 기쁘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서 ‘Acts29 인도네시아’를 힘 있게 써 내려가게 하시는 것을 목도했다. “온누리교회 선교는 팀워크와 프로그램 공유, 온 교회의 사역 경험 이 함께 들어가는 현장 맞춤형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다양한 필요에 맞춰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갔음을 알 수 있었다.

돌덩이처럼 굳고 마른 뼈와 같은 무슬림 지역 주민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주를 구주로 고백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Sanja교회가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간구한다.

이상윤 집사
(수원온누리교회)브릿지33+공동체
문경 동성교회

이번 아웃리치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팀장을 맡게 되었다.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린 첫 기도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문경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마음이 팀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기를 기도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36명의 팀원을 하나로 묶어 주셨다. 마을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을사역팀, 아이들과 함께한 여름성경학교팀, 모든 팀원의 식사를 담당한 식당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준 중보기도팀이 있었다. 맡은 사역은 달랐지만 우리는 모두 한마음으로 움직였다. 돌아켜보면 그 모든 일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그곳에서 친히 일하셨기에 가능했다. 36명이 하나 되어 움직일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해마다 어린이 성경학교는 은혜가 넘쳤다. 그런데 올해는 마을사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평소 동성교회와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던 마을 이장님이 제헌절을 앞두고 먼저 마을 전체의 태극기를 교체해 달라고 부탁하셨다.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이장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부터가 우리에게 큰 은혜였다.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두 팔을 걷어붙여



브릿지33+공동체 아웃리치팀이 마을 어르신들 머리를 염색해주고 있다.

정성껏 마을 곳곳의 태극기를 교체하고 계양했다.

또 어르신들이 매일 모이는 마을회관 구석 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미용 봉사와 발마사지로 어르신들께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신 이장님이 흡족해하시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다. 동성교회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번 온누리교회 브릿지 33+공동체 지체들의 아웃리치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문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오래도록 깊이 남았다.

아웃리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지 2~3일 쯤 지났을 때, 동성교회 목사님께 연락이 왔다. 문경 지역신문에 우리 팀이 마을에서 한 봉사활동이 기사로 실렸다는 소식이었다. 그 기사를 팀원들과 함께 읽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고 감격했다. 우리는 부르심에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다. 그 순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번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단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임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빛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기 위해 존재하고,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다. 그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어둠이 밝아지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 믿는다.

36명이 함께한 동성 아웃리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심은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심지연 자매
(브릿지33+공동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

대전온누리교회 동누리공동체
보성 맑은하늘푸른숲교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친히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년 전 순장을 내려놓은 뒤로 나는 성가대 외에는 공동체 사역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그러다 다락방장으로 다니엘순을 섬기게 되었고, 이사이다락방, 에스더다락방과 연합해서 국내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부족한 내가 팀장을 맡았다.

그동안 여러 국내외 아웃리치에 참여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 아웃리치는 현지에 가서 봉사하고 오는 단편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얻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이번에도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 현지 교회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중보기도의 행진을 이어가고 싶었다. 더불어 내 신앙의 온도를 다시 끌어올리고,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누리며,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바랐다.

에스더다락방장님의 추천으로 보성 맑은하늘푸른숲교회를 품었다. 편도 3시간의 먼 거리를 하루 만에 다녀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1박 2일 일정을 잡았다. 보성에서 짧은 만남만으로는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 어렵겠다는 생각에 대형 버스로 함께 오기로 했다. 그러나 200여만 원의 버스 대절비와 숙박비 등 만만치 않은 재정문제가 거대한 산이었다. ‘1인당 10만 원이 넘는 회비를 내야 하는데 과연 40명이 모일 수 있을까?’, ‘버스 한 대로



대전온누리교회 동누리공동체 아웃리치팀이 만든 ‘미로 기도길’을 걷고 있다.

가야 하는데 정원이 넘치면 어쩌지?’라며 신청자가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여 명이 신청해 아웃리치를 추진할 수 있었다.

5월 첫 주 회의를 시작으로 8월 아웃리치를 갈 때까지 매주 주일 아침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계획을 구체화했다. 5월 25일에는 사전 답사를 했고, 이승헌 목사님, 이애련 사모님과 현지에서 요청하는 사역들을 확인했다. 목사님에게는 쉽과 회복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

는 비전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마을전도를 위한 어르신 잔치와 이미용사 역뿐만 아니라, 교회 옆 공터에 ‘미로 기도길’을 조성하는 특별 프로젝트도 포함했다.

사상 초유의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전도팀, 뷰티살롱팀, 마을잔치팀, 기도길팀, 예배팀, 케어팀 등 모든 팀장님과 팀원들이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묵묵히 땀 흘리며 헌신했다. 걱정했던 재정도 뜻밖의 무명 헌금과 공동체의 지원, 곳곳에서 내민 따뜻한 손길로 부족

함도 남음도 없이 정확하게 채워졌다.

돌아오는 버스와 해단 식사 모임에서 한 분 한 분의 간증과 다음 아웃리치를 향한 소망을 들었는데 감동이 가득했다. 그중에서도 “너무 힘들어서 천국 문 앞까지 몇 번을 갔지만,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들이 모두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몸을 일으켰다”는 고백이 귓가를 맴돌았다. 전도팀과 뷰티살롱팀, 마을잔치팀의 빼어난 섬김으로 어르신 다섯 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환호했다. 무엇보다 사역 시작 전과 첫날 사역 후 저녁, 다음날 완성한 기도길, 교회를 떠나며 드린 예배는 우리의 성과 훈과 육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것을 목도하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했다.

돌아보면, 처음 팀장을 맡았을 때는 세상의 프로젝트를 하듯 내 경험과 논리와 계산으로 아웃리치를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역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할 때,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채우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새삼 깨달았다.



김선환 집사
(대전온누리교회)

인천온누리교회 온유공동체
카자흐스탄

잊을 수 없는 ‘거룩한 순종의 여정’

평소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고 자부해 왔다. 그러나 바쁜 일상과 눈앞의 현안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음을 온전히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나는 당장의 비바람과 작은 언덕 앞에서 조급해하며 불안해했던 연약한 존재였다.

올여름, 하나님이 내 삶에 잊을 수 없는 거룩한 순종의 여정을 선물하셨다. 멀고 낮은 땅, 카자흐스탄 위구르족 영혼들을 향해 떠난 아웃리치가 바로 그 은혜의 현장이었다. 정년을 지나 노년의 삶을 보내면서 내 삶의 남은 시간이 그저 안락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를 늘 기도해 왔다. 지난 모든 날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다. 그러나 막상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위구르족 사역지로 떠나기 전 내 안에 인간적인 두려움과 육신의 한계에 대한 염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순종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늘의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셨다.

열악하고 척박한 이국땅에서 청춘을 바친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왜 이분들이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고생을 하는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현장에



인천온유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카자흐스탄 현지인들에게 맞춤형 돌보기를 제공하고 있다.

서 위구르 영혼들을 만나면서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위구르인들의 삶은 오랫동안 상처와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경계가 없었다. 준비해 간 사역과 따뜻한 손길로 다가갔더니 수줍게 닫혀 있었던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었고,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머무는 이유가 보였다.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

다.

“내가 이 영혼들을 단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이들을 눈물겹도록 사랑한다.”

내 안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흘리시는 붉은 눈물이 내 심장에 쏟아졌다.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이번 카자흐스탄 아웃리치는 단순히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시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황무지 같은 그 땅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며 굳어있던 내 영성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부흥의 시간이었다. 나이라는 한계와 환경의 제약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특권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낮은 땅의 작은 만남 하나하나가 내 믿음의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제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설명될 수 없음을 고백한다. 남은 삶도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가고자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반드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위구르 땅에 뿌려진 작은 복음의 씨앗들이 훗날 거대한 은혜의 숲을 이룰 것을 믿는다. 내 남은 여정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린다.



남구현 집사
(인천온누리교회)

2026 온누리사역축제, 이렇게 진행됩니다!

2026 온누리사역축제 하루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오전 주제 강의, 오후 선택 강의, 저녁 오픈 집회 세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3일 동안 총 9세션이 진행됩니다. 오전 주제 강의 3회, 오후 선택 강의 3회, 저녁 집회 3회를 합해 총 9회입니다.”

오후 선택 강의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오후 선택 강의 신청은 2026 온누리사역 축제에 등록한 성도들께 추후 별도로 안내합니다.”

행사 기간 중 다른 교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온누리사역축제(OMC)가 열리는 3일 동안 교회의 모든 스쿨과 강의, 기도모임, 순예배는 이 행사 참석으로 대체됩니다.”

당일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로비에 별도의 등록데스크가 설치됩니다.”

사전에 신청한 성도들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서빙고온누리교회 로비에 등록데스크가 있습니다. ‘ONCARE’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다음 개인 QR 코드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안내 문자메시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목회지원실(02-3215-3234)로 문의하면 됩니다.”

임직 학점 대상은 누구이고, 학점은 어떻게 인정됩니까?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임직 학점 대상입니다. 9세션 중에서 7회 이상 참석하고 소감문을 제출하면 임직 2학점(선택)이 인정됩니다. 출석카드와 소감문 양식 등 더 자세한 안내는 행사 책자에 있습니다.”

캠퍼스 성도들도 서빙고온누리교회로 가야 합니까?
“2026 온누리사역축제 모든 일정이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캠퍼스 성도와 임직 후보자들도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행사 기간에 교회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까?
“교회주차장 공간이 협소합니다.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주십시오. 교회주차장과 공원 임시주차장은 3인 이상 탑승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차되면 외부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한강시민공원 이촌 제2, 3주차장을 이용하면 교회에서 주차비를 지원합니다. 이촌역 4번 출구, 서빙고역 1번 출구, 한강시민공원 이촌 제2, 3주차장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오가는 셔틀도 운행합니다. 셔틀은 정해진 배차 시간 없이 탑승 인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합니다. 운행 시간은 매일 09:20~10:30(13일은 08:30부터 운행), 16:00~16:30, 19:00~19:40, 21:20~21:50입니다.”

저녁 오픈 집회 시간에 어린 자녀를 맡길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녁 오픈 집회 시간에 선교관 2층 꿈아 이홀에서 탁아방을 운영합니다. 만 3개월 이상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가 대상입니다.”

행사 기간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행사 등록 및 접수를 하신 성도들에게는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저녁 식사는 교회 식당에서 식권을 구매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식당이 운영됩니다.”

통역도 제공됩니까?
“통역은 오전 주제 강의와 저녁 오픈 집회에만 제공됩니다. 오후 선택 강의 통역이 필요한 성도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수요가 있는 강의 위주로 통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행사 참가 기념품이 있습니까?
“모든 일정에 등록한 성도들에게 이재훈 위임목사의 신간 <축매적 리더십>을 증정합니다.”



사진은 9월 20일 방송된 ‘힐링보이스’의 전덕호 보이스(참가자)의 무대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

유튜브 기준 1라운드 합산 100만 뷰 돌파

CGN이 선보인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 1라운드 영상이 1회 67만 뷰, 2회 33만 뷰를 기록해 합산 100만 뷰를 돌파했다(10월 2일 기준). 쇼츠를 포함한 관련 영상 총 조회수도 267만 뷰를 넘어서며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힐링보이스’ 1라운드는 1,600: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보이스(참가자) 32인 전원이 탈락자 없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경쟁보다는 무대 자체에 집중하며 기존 서바이벌 오디션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가비엔제이 5기 멤버

예잔, ‘싱어게인3’ TOP10에 올랐던 호민, 밴드 슈퍼키드 멤버 전덕호, 밴드 ‘몽니’ 멤버 김신의, ‘소울 싱어즈’ 전(前) 보컬 장근희 등이 출연했다. 특히 전덕호는 대장암 3기 항암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인 상황에서 무대에 올라 보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기록 OTT ‘풍당’, 오후 5시 CGN TV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org



이와테 기도제목

- 10월 4일(일) 러브소나타로 이와테현과 일본 전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도록
- 10월 5일(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둠의 영에 묶인 영혼들이 자유케 되도록
- 10월 6일(화) 가스펠 나이트로 일본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뜨겁게 일어나기를
- 10월 7일(수) 리더십 포럼과 교회 세미나로 일본 교회 리더십들이 강건해지도록
- 10월 8일(목) 토사이홀의 모든 좌석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영혼으로 가득 차도록
- 10월 9일(금) 이재훈 목사님과 통역 목사님, 출연진에게 기쁨 부으심이 넘치기를
- 10월 10일(토) 참가자들과 모든 스태프가 순종의 섬김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결혼비전스쿨 With 4U 6기 참가자 모집

결혼비전스쿨 With 4U 6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도곡교육관 2층 온유홀에서 진행된다.

결혼비전스쿨 With 4U에서는 참가자들이 가정과 삶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 앞으로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 가도록 돕는다. 양재 온사랑공동체 대외 사역팀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행가래 운동본부가 주최한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싱글,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 결혼 이후 청년부를 떠나 성인공동체에서 자리를 잡으려는 커플이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10월 8일(목)까지 QR 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문의: 010-4418-7978



와이무슬림 참가자 모집

와이무슬림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양재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0월 24일(토)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와이무슬림에서는 이슬람 역사와 핵심 교리,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슬람 등을 배운다. 독후감 및 수료 간증문을 제출해야 수료할 수 있다. 문의: 010-6302-3482

/ 남현영 기자

제18회 온누리 캠퍼스 한마음 축구대회

10월 31일 토 오전 8시 30분 명지대학교

제18회 온누리 캠퍼스 한마음 축구대회가 10월 31일(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대운동장(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10월 4일(일)까지 서빙고, 양재, 수원, 대전, 평택, 용인온누리교회는 하단 문의번호로, 그 외 캠퍼스는 신청서를 이메일(hunmin1504@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온누리교회 성도 및 가족이 대상이다. 참가비는 팀당 50만 원. 출전 선수는 팀별로 30대 미만

(1996년 이후 출생자, 고등학생 제외) 3명 이내, 30대 이상 8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의: 서빙고 010-6470-7131
양재 010-8080-6967
수원 010-4655-1999
대전 010-5454-9338
평택 010-9837-6676
용인 010-6602-3638
부천, 남양주, 인천, 강동, 영종, 제주, 서산은 각 목회행정실로 문의

<생명의 삶> 앱 ‘360일 이용권’ 이벤트

10월 31일까지 이용권 구매시 40일 추가 제공

<생명의 삶> 앱 ‘360일 이용권’ 이벤트를 한다. 10월 31일(토)까지 <생명의 삶> 앱에서 ‘360일 이용권’을 구매하면 사용 기간 40일을 추가로 제공한다. 총 40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이용권은 30일 5,900원, 90일 17,400원, 360일 64,800원이다. <생명의 삶> 앱은 성도들이 일상

에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QT 습관을 들이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 이벤트는 장기적인 말씀 묵상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생명의 삶> 앱은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02-2078-3230
durannobiz@gmail.com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 신규 학생 모집

10월 26일 원서 접수 마감, 5~9학년 대상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Seoul Providence School) 2027년 봄학기 신규 학생을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10월 26일(월)까지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 홈페이지(seoulprovidence.org)에서 하면 된다.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은 온누리청소년센터 4층에



SEOUL PROVIDENCE SCHOOL

서 운영한다. 문의: 02-792-0927

/ 홍하영 기자

이재훈 위임목사, <촉매적 리더십> 출간

‘섬김의 리더십’ 조명, 10월 13일부터 구매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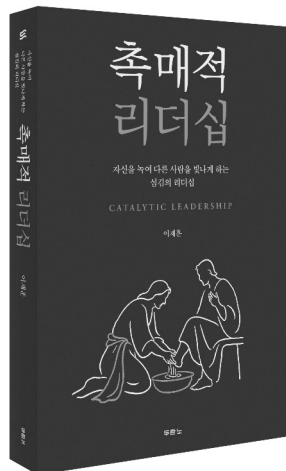
이재훈 위임목사가 리더십의 원리를 다룬 신간 <촉매적 리더십>(두란노)을 펴낸다. 부제는 ‘자신을 녹여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섬김의 리더십’이다.

책 <촉매적 리더십>은 다른 물질의 반응을 끌어내는 ‘촉매’에 빗대어, 다른 사람이 빛을 발하도록 곁에서 돕는 리더십을 소개한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촉매적 리더십의 요건으로 소명, 용기, 그리고 협력을 꼽았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갈렘, 요나단, 바나바를, 2부에서는 디스 호스트, 조지 물러, 프랜시스 쉼퍼를 통해 촉매적 리더십을 살펴본다. 3부에서는 故 하용조 목사의 생애와 조연을 바탕으로 촉매적 리더십을 설명한다.

10월 13일(화)부터 전국 두란노서점 및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2만 1천 원.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이웃과 함께 나누는 감사!

‘사르밧 프로젝트’ 10월 11일 접수 마감

‘2026 사르밧 프로젝트’ 마감일 얼마 남지 않았다.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10월 11일(일)까지 현금 및 나눔대상자 접수를 마쳐야 한다. 사르밧 프로젝트는 이웃과 함께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감사를 나누는 사역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추수감사절 감사의 쌀’과 ‘성경책’을 전달한다.

2026 사르밧 프로젝트 현금 참여를 원하는 순 또는 개인은 10월 11일(일)까지 각 캠퍼스 지정 계좌(QR코드 참고)에 입금하면 된다. 현금액은 쌀 20kg 한 포대 가격인 65,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순 단위로 참여할 때는 입금자명에 공동체, 다락방, 순 이름을 일곱 자 이내로 적고, 개인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으면 된다.

나눔대상자 추천은 10월 11일(일)까지 공동체를 통해 이메일(QR코드 참고)로 하면 된다. 선정 순위는 온누리교회 공동체 소속 성도, 외부 기관, 외부 개인 순이다. 신청서를 보낼 때는 공동체 담당목사와 대표장로를 참조인으로 포함하고, 본문에 ‘승인 확인 문구’를 적어야 한다. 추수감사절 감사의 쌀은 현지 업체가 직접 발송한다. 서빙고와 양재를 제외한 캠퍼스는 상황에 맞춰 대상자에게 전달하면 된다. 서빙고에서 쌀 발송을 원하는 캠퍼스는 담당자가 대상자 리스트를 취합해서 10월 11일(일)까지 접수하고,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면 된다.

문의: 02-3215-3434(서빙고), 각 캠퍼스 담당자

/ 홍하영 기자



창조신앙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10월 18일(일)까지 신청

창조신앙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0월 18일(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창조신앙 아카데미에서는 성경적 창조신앙 관점을 익히고, 성경과 과학을 전도에 활용하도록 훈련받는다. 마지막 주에는 퀴즈 대회가 열린다.

문의: 010-4658-0987

의사 맞춤형전도집회 ‘러브터치’

11월 2일 오후 6시 50분 서빙고 본당

의사 맞춤형전도집회 ‘러브터치’가 오는 11월 2일(월) 오후 6시 5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와 NGO 메디엑세스가 공동 주최한다. 의사 맞춤형전도집회 ‘러브터치’에서는 방송인 김원희, 가수 범키, 가스펠 보컬밴드 크룩스, 샌드애니메

이션 작가 박진아가 출연한다. 설교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한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나 구글폼(하단 QR코드 참고)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회비는 1인당 5만 원.

문의: 02-570-7110

/ 홍하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부르키나파소 국생중학교 개교 지원

NGO 더멋진세상이 현지 선교사, 주민들과 협력해 설립을 지원한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국생마을 국생중학교가 지난 9월 25일(금) 첫 개학식을 열었다. 2021년 6월 건축을 시작한 지 5년 만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2019년 국생마을과 협력을 시작했다. 그해 12월 국생교회 헌당, 초등학교 지붕 교체,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을 했다. 국생중학교는 2021년 교실 2칸과 화장실을 완공했지만, 2022년 1월 쿠데타 이후 행정 상황이 바뀌면서 개교가 미뤄졌다. 2024

년 마을운영위원회의 절차 재신청과 교육 당국 협의, 2026년 7월 문교부 관계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9월 교사 인사 발령이 확정되면서 문을 열게 됐다.

국생중학교에서는 기존 교실 2칸에서 1, 2학년 수업을 시작했고, 추가 교실 2칸은 마을주민들의 참여 중심으로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NGO 더멋진세상은 ‘총체적 선교’의 관점에서 교육, 식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이어가며 주민이 마을 변화의 주체로 서도록 동행할 계획이다.

/ 홍하영 기자

젊은부부학교 61기 참가자 모집

10월 24일~11월 14일 매주 토 서빙고 두란노홀

젊은부부학교 6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젊은부부학교는 부부 각자의 성장 배경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성경적 소통 방식을 배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를까? 부부 성격검사’, ‘내 마음의 뿌리, 우리 관계의 시작’, ‘부부 대화·소통 실습’, ‘하나님&축복의 가정’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이현주 교수(연세대 상담

코칭학), 정희성 목사(YWAM 내적치유), 김숙경 소장, 황규복 박사 부(사랑연구소), 이찬우 목사(젊은부부학교 담당)가 강의한다. 3주차에는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당)가 격려 및 인사를 전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아이스쿨 또는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 젊은부부학교’에서 신청하면 된다. 결혼 12년 차 이하 부부가 대상이다. 선착순 40가정을 모집한다. 회비는 가정당 20만 원.

문의: 010-3714-2509(남편)

010-4892-2661(아내)

온누리청년부OB, 40주년 기념 홈커밍 감사예배

10월 17일 오후 4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



온누리청년부OB(온누리 빛)가 ‘40주년 기념 홈커밍 감사예배’를 10월 17일(토) 오후 4시 서빙고온누

리교회 두란노홀에서 드린다. 이번 감사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나눈 귀한 추억과 믿음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새 비전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을 가진다.

1986년부터 2000년까지 온누리교회 청년부를 섬겼던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QR코드 참고).

회비는 1만 원. 초대장(QR코드)에 참석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온누리청년부OB(온누리 빛)는 온누리교회 청년부 출신 선교사와 목회자, 사역자를 섬기고자 결성한 공동체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Why Israel?’ 참가자 모집

10월 17일~11월 21일 매주 토 양재 JDS홀

‘Why Israel?(와이 이스라엘)’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JDS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10월 16일(금)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Why Israel?(와이 이스라엘)’은

복음의 출발지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복음에서 멀어졌는지를 역사적, 영적 배경을 짚어 보고, 언약의 말씀을 토대로 이스라엘 복음화를 향한 영적 도전을 제시한다. 김용산 목사, 제치윤 목사, 오하평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010-2930-2322

/ 남현영 기자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장로칼럼

행복한 부부학교



신현일 장로
(가정사역공동체)

온누리교회 가정 사역본부 대외사역 팀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가정사역본부장 김재석 목사님 부부를 비롯한 12가정의 사역자들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그곳에서 현지 목회자 부부를 위한 ‘행복한 부부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아웃리치는 목회자 가정의 회복을 통해 그들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와 가정이 회복되기를, 베트남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시작했다.

베트남에는 아직 가부장적인 가정문화가 많이 남아 있다. 교회와 목회자 가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현지 교회도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가는 가정사역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요청에 응답해 행복한 부부학교를 열었다.

이번 행복한 부부학교에는 베트남 연합교단 소속 목회자 부부 18가정이 참여했다. 베트남 연합교단 총회장 부부도 참여했다. 현지 청년들로 구성된 ‘The Way’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으로 행복한 부부학교가 문을 열었다. 지원자 부부 소개, 남편과 아내 자랑, 나눔, 생일 및 결혼기념일 축하 등 서로를 다시 바라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피플퍼즐’, ‘하나님의 은혜’, ‘성경적 가정제도의 원리’, ‘크리스천 부부대화’, ‘사랑을 완성하는 헌신’ 강의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와 가정의 모습을 배우고 나눴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목회자 부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열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었다. 목회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에게 감

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부 관계를 돌아보는 모습에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성령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순서인 언약결혼식과 피로연에서는 부부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감격의 시간을 보냈다.

이번 사역은 호치민온누리교회와 임성호, 함명자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가정사역본부 대외협력팀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다. 모든 강의 자료는 사전에 베트남어로 번역했다. 강의와 행복한 부부학교 진행은 물론, 조별 모임과 나눔에도 통역사를 배치해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도록 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했다.

행복한 부부학교를 마치며 목회자 부부들 사이에 “베트남 교회에도 가정사역이 꼭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내년에도 행복한 부부학교를 열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 번의 행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트남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새로운 사역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 주셨다는 생각에 더욱 감사했다.

행복한 부부학교는 2002년 시애틀 형제 교회를 시작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에서 100여 회 진행하며 온 누리의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한 목회자 가정의 회복이 한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수많은 가정을 살리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한다. 목회자 가정에서 시작된 회복의 물결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그 가정들을 통해 베트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가정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또 하나의 Acts29를 기대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권사칼럼

하나님의 발자취



서정원 권사
(관악금천공동체)

올해 초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주일에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그 교회 선교사로 오신 독일 선교사님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 선교사님은 2년 동안의 일본 선교를 마치고 주중에 선교 보고를 한 다음 독일로 떠난다고 했다. 내 일정 때문에 선교 보고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얼마 뒤 인터넷 영상으로 볼 수 있었다.

영상을 보면서 가장 놀란 것은 보고의 제목이었다. ‘하나님의 발자취’였다. 2년 동안의 일본 사역 보고에는 선교사님의 시시콜콜한 일상까지 하나님의 궤적 안에 담겨 있었다. 말씀대로 승리한 삶도 있었을 테고, 넘어지거나 좌절한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선교사님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승패를 그대로 드러내며 그 모두를 하나님의 발자취라고 말했다. 이긴 것을 자신의 열심으로 돌리지도, 진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리려 하지 않았다. 정직함과 함께 삶 속에 말씀의 원칙이 세워진 진솔한 보고였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순종만이 드러난 멋진 보고였다. 그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숙연해졌다.

가을을 맞아 다시 시작하는 사역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물었다. 그 물음 가운데 하나님이(빌립보서) 말씀을 주셨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빌 3:16).

기쁘고도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가슴에 담았고, ‘봄 학기 때처럼 해 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봄에도 상황이 만만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잘 견

디며 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했더니 이번 학기를 앞두고도 두려움만 남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됐다. 요즘은 <역대기>를 묵상하고 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의 궤적 안에서 다시 들려주는 책이다. 얼마 전 묵상한 ‘베레스 옷사’ 사건이 마음에 남았다. 사역을 앞둔 나에게 묵상과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한 사건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황이 어떠한 사람의 생각으로 손대면 안 되는 것이 있음을 하나님이 지금의 현실에서 보게 하시는 것 같았다.

10월 초에 시작하는 사역에서 우리 팀이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본다. 봄 사역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듯해 아픔을 안고 가야 할 것 같았다. 그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데 뜻밖에 추석 당일 새벽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리더가 갖는 어려움을 기도로 위로하고 선포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와 감동이 일었다.

언약궤를 성으로 맞아들이며 온갖 악기와 찬양대로 기쁨의 소리를 내는 <역대기> 속 다윗을 보았다. 나는 리더로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소리 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이렇게 글로 나누는 것 아닐까 싶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각자 돌아볼 기회를 얻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멋진 찬양이지 않을까.

이번 가을 사역은 <역대기>와 함께 간다. 사역을 마치고 지나는 궤적을 돌아볼 때, 나의 발자취가 옳otti 하나님의 흔적으로만 해석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나도 내 궤적의 제목을 ‘하나님의 발자취’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다. 어디 사역뿐이겠는가. 삶 전체도 하나님의 궤적에 들어가기를 바라며 오늘도 감사하며 간다.

신앙에세이



카와무라 요시키 목사
(일본어예배 담당)

지난 9월 6일(일) 열린 일본어예배부 ‘온누리 패밀리 축제’에 243명이 찾아와 주셨다. 참가자는 모두 아직 교회와 연결되지 않은 일본인 주재원 가정과 한일 가정이었다. 기독교 인구가 1%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에서 교회가 여는 축제에 믿지 않는 가족 243명이 모인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다.

행사장은 일본의 여름 축제를 옮겨 놓은 듯했다. 고리 던지기과 사격, 야키소바와 빙수를 파는 노점, 연극과 찬양까지 일본어예배부 성도님들이 손수 준비해 주셨다. 주제는 ‘하나님의 가족’이었다. 국적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한 가족이라는 것,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초대가 하루 종일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다.

그런데 인원수보다 내 마음에 더 남은 것이 있다. 행사장 곳곳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다. 예전에 한국어 교실에 다니던 분이 그곳에서 가르치던 일본어예배부의 한 자매를 발견하고는 “お久しぶりです(오하시부리데스, 오랜만이예요)”하며 인사를 건넸었다. 한국어 교실을 떠난 뒤에도 서로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남아 있었다. 사람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름 전도 캠프에 왔던 일본인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외치며 캠프에서 선생님을 맡았던 한국인 자매에게 달려갔다. 한국인 자매가 일본인 아이를 섬기고, 그 아이가 안심하며 품에 뛰어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두 나라 사이의 깊은 골짜기를 생각하면 그 몇 초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의 증거로 충분했다.

일본인 전도에서는 프로그램보다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인들은 웃는 얼굴로 복음을 들어 주신다. 그러나 웃으며 듣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

들이는 것 사이에는 아직 깊은 거리가 있다. 그래서 ‘누가 전하고 있는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신뢰의 토대 위에서만 일본 선교는 나아간다.

그날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시작은 1989년 서울에 사는 일본인을 위해 기도하던 작은 기도 모임이었다. 그 일본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어서 모인 몇 사람의 기도가 전부였다고 들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사역은 전도집회가 아니라, 이듬해인 1990년 일본인 주부들을 위해 연 ‘한글 강좌’였다. 복음도 전하지 않는 순수한 어학 교실이었고,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베이비시터까지 대기시켰다.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먼저 내어 준 것이다.

그 한글 강좌가 입소문을 타고 50여 명의 일본인이 모였다. 그곳에서 교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생겨났고, 아이들을 위한 토요학교가 시작되었으며, 마침내 일본어 예배가 태어났다. 하나님은 사람을 모으기 위한 장치가 아니

라, 한 사람의 필요를 섬기는 수수한 일에 사용하셨다. 그로부터 35년, 그날 “오하시부리데스”하며 서로를 부르던 목소리는 그 걸음의 연장선이었다.

그날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이들도 온 힘을 다해 찬양하고, 춤추며, 전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 뜻이 얼마나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도 신뢰하기에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신뢰하기에 들으려 한다고 생각한다.

전도 집회를 열어도 세례를 받는 사람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체육관에 가득했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40년의 기도와 35년의 작은 걸음,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신뢰’라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심는 것과 물을 주는 것뿐이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전 3:6). 복음의 씨앗은 분명히 뿌려지고 있다. 때가 이르렀을 때 그곳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한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4: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등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등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등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 화요Holy Impact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2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7:0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선교관 1층 믿음홀 담당: 김철희 목사 문의: 010-5258-7525 S브릿지 예배 내용: 만 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010-9311-190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유치부~고등부(학령기)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시온홀 문의: 김세용 팀장(010-7183-5346)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20세 이상 청장년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남주현 팀장(010-9811-7154) 꿈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미취학~중등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안선주 팀장(010-7979-4180)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4 Youth Service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 Love Zone(Pre-K-1st) / Joy Zone(2nd-5th) 오전 11:30 선교관 지하 2층 콘서트를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5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M미션 러시아예배 11:30 선교관 시온홀 /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믿음홀 /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월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2:30 온누리청소년센터 강의실1 인천M미션 AllGen예배 14:30 소망홀 / 러시아어예배 14:30 믿음홀 / 중국어예배 14:40 사랑홀 / 몽골어예배 14:30 로잔홀 / 페르시아어예배 매월 첫주 토요일 11:00 로잔홀 안산M센터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만나홀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아랍어예배 12:00 도서관 / 캄보디아어예배 10:30 302호 /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베트남어예배 11: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스타트리얼 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1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온누리홀 / 필리핀어예배 14:00 온누리홀 / 태국어예배 14:00 만나홀 / 중국(청장년)예배 10:30 304호 / 대학청년부 14:00 3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방 11:00 1F		지역아동센터 / 다문화 예꿈 11:00 B101호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703호 /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몽골어예배 14:00(매월 둘째주 18:00) 706호 / 다문화 꿈방 11:00 705호 군산M센터 열방(차세대)예배 11:00 101호 남양주M센터 ANEWS예배 11:30 301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 캄보디아어예배 11:30 304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방 11:00 2층 차세대실 / 둔포 차세대 토요일 14:00 둔포성결교회 2층 화성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1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10:30 2센터 2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00~11:00 장소: 서빙고 꿈아이홀, 양재 꿈터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조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4561-5192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	--	--	--	---	--	--	--	---

양 재 02.57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일동제약 B1 11:3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1:5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사랑홀(숙명여고 강당)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고등부~20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우해진 팀장(010-9288-7041)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장년 30세 이상)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비전홀B 문의: 강주희 팀장(010-4902-1022)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9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정진모 목사 일시: 주일 오후 1:5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경찬홀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 문의: 010-6422-837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일예배 10: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장애인예배 예수사랑부 주일 9:00 꿈아이홀 / 사랑부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자동차백화점 506호
---	--	---	--	---	--	---	--	---

수원 031.895.6500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명지대학교 60주년 채플관 새벽예배 월~금 5: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성령집회 19: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대학청년(주일) 14:0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학생복지관) 영아 1부 9:00 / 영아 2부 11:30 / 유아 1부 9:00 / 유아 2부 11:30 / 유치 1부 9:00 / 유치 2부 11:30 / 유년 1부 9:00 / 유년 2부 11:30 / 파워웨이브 1부 9:00 / 파워웨이브 2부 11:30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창조예술관) 초등 1부 9:00 / 초등 2부 11:30 / 소년 1부 9:00 / 소년 2부 11:30		대전 042.825.3642 토요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408호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5:30 세종교육관 408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15.3521 토요일예배 10:30 B2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B2 본당 / 2부 11:30 B2 본당 / 3부 13:50 B2본당 / 4부 (대학청년) 16:00 B2 본당 행복한하나님예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 1부 9:00, 2부 11:30 꿈아이홀(3층) / 유치 1부 9:00, 2부 11:30 꿈이들홀(3층) / 꿈팡 1부(초1~초6) 9:00 드림홀(2층) / 유년 11:30 드림홀(2층) / 초등부 11:30 비전홀(4층) / 파워웨이브 1부(초1~고3) 9:00 비전홀(4층) / 중등부 11:30 교육관 믿음홀(3층) / 고등부 11:30 교육관 소망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일예배 10:2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본당 영어예배(주일) 11:30 선교관 화평홀 영어예배(주일) 키즈워십 9:30 선교관 화평홀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11:30 3층 꿈팡 초등부실 / 유년부 11:30 3층 꿈팡 유년부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선교관 기쁨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일예배 9:50 본당 1, 2층 일요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본당 1, 2층 대학청년 16:00 본당 1, 2층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샤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꿈팡3부 13:50 드림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3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1, 2층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 1, 2층
---	--	---	--	---	--	---	--	---

강동 02.475.9686 토요일예배 10:3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프라미스(본당), 온유대학부(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드림홀 / 초등부 11:30 사랑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6:20 본당		용인 031.331.8171 토요일예배 9:00 김사무엘홀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김사무엘홀 대학청년 14:00 박모세를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길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를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김사무엘홀 금요기도회 10:30 김사무엘홀 금요성령집회 20: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5:3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로제타홀(2층) / 고등부 10:00 로제타홀(2층) 수요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제주 064.794.8090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6:00 본당 차세대예배 예꿈아이(미취학) 1부 10:00, 2부 12:00 / 꿈팡유년부(초1~3) 1부 10:00, 2부 12:00 / 꿈팡소년부(초4~6) 1부 10:00, 2부 12:00 / 파워웨이브 중등부, 고등부 1부 10:00, 2부 12:00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성령집회 20:00 본당 대학청년 누림청년부 13:30		서산 041.665.9686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본당 3부(대학청년부) 14:30 본당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 11:30 비전홀 파워웨이브 9:30 비전홀 주중예배 화요중보기도모임 10:30 본당 수요저녁 예배 19:30 본당 토요일선교기도모임 6:30 경찬홀
---	--	--	--	--	--	--	--	--



생명의삶 APP

매일의 QT를 1년의 습관으로

360일 이용권 구매하면

**40일 더,
총 400일!**



이용권 구매하기

매달 다시 시작하지 말고, **400일** 동안 꾸준히 QT하세요!

신청 기간 2026.9.15~10.31

신청 방법 생명의삶 APP ▶ 360일 이용권 구매 ▶ 기간 자동 적용



문의 • 02-2078-3230 | durannobiz@gmail.com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